

시연施連의 현조실록 탐험 賢祖實錄探險

## 권명호 權明浩 국회의원의 가지 않은 길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울산(蔚山) 동구(東區)에서 21대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당선된 권명호(權明浩) 의원은 단종(端宗) 사화로 경상도(慶尚道) 연일현(延日縣) 대잠산(大岑山)에 유배를 와서 100년 금고형(禁錮刑)에 묶었던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으로부터 19대, 경주병마절제사(慶州兵馬節制使)와 예조 병조 정랑을 지내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의 15대손이 된다.

안동권씨사정공세보(安東權氏司正公世譜)에 따르면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린(權德麟))의 둘째 증손(曾孫, 휘諱 임恁)의 6남 1여 중 막내아들(휘諱 중근(仲坤)) 집 후손인 권명호(權明浩) 의원은 1961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에서 부친 휘諱 환봉환(1914 갑인생金寅生) 공과 평해황씨(平海黃氏, 부부 휘諱 일정(一清)) 사이에서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 손을 잡고 울산으로 옮겼다.

어릴 적엔 호준(浩俊)으로 불렸다. 생활의 근거지는 울산 방어진으로 옮겼으나 선산(先山)은 고향인 경주 모서리에 두었을 만큼 위선 정신이 강했다.

방어진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학교 선생님이었던 큰누나(명자明子, 김인도金仁道씨와 혼인)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받고 성장했다고 한다. 6살 때 큰누나가 근무하는 학교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보다 누나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준 어머니를 보고 한없이 울었다고 그의 저서 “가지 않는 길”에 서 밝혔다.

11남매나 되다 보니 생활이 극히 어려워 일곱 살 되던 해 서울에 입양됐다. 7일 째 되는 날 아침 ‘명호야’하고 부르는 세째 형(福俊)의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형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그린 고통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 선택한 정치행로에 인내력으로 채워져 정치

행로가 순탄치는 않을 때마다 큰누나와 셋째 형을 떠올리면서 풀어나갔다.

울산시 동구의회와 시의원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제4대(2006년)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동구의회 의원으로 첫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2010년엔 울산시 광역의원에 진출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당선이 돼 의회와 행정을 과고루 경험하게 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비교적 탄탄했던 정치행로에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시기 폐배란 고통에서 위민(爲民)하는 길을 찾게 된다.

이후 2020년 총선(總選)에서 21대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당선됐다.

초선의원 답지 않게 국회의원 경력을 화려하다. 국민의 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 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민의 힘 원내 부대표, 국민의 힘 정책조정위원회 제 2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당내에서 갖는 위치처럼 서울과 울산으로 오가면서 민심을 살피고 위민(爲民) 정책을 펴는데 고수라는 평가를 달고 나니 국회의원이다. 앞으로도 좌우명처럼 내세운 가지 않는 길의 새길이 기다려진다. “가지 않는 길” 등 두 권의 저서(著書)가 있다.

안동권씨 좌윤공파(佐尹公派)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 16세)의 후손으로 권일(權逸, 현김공현監公 1911~2001 재일거류민당장), 권기술(權琪述) 사정공(司正公 1938~2011) 권명호(權明浩, 사정공(司正公 1961~) 의원까지 세 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lt;11&gt;



권현 편집위원장

조선 중기의 문인 석주(石洲) 권필(權禪, 1569~1612) 공의 시문집으로 본집 8권, 외집 1권, 별집 2권에 총 11권 4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22세로 주밀공파(樞密公派)이다. 자는 여장(汝章)이고 석주(石洲)는 호이다. 승지 권기(權基)의 손자이며, 권벽(權擊)의 다섯째아들이다. 숙부 권별( )에게 출제하였다. 1569년 12월 26일에 서울 마포의 현석촌(玄石村)에서 태어났다.

1587년 19세에 사마시에 장원하였으나 글자 한자를 잘못 써서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 이로부터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1592년 24세에 임진왜란에 극언(極言)으로 상소하여 이산해(李山海, 1539~1609)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나리를 그르친다고 탄핵하였다.

1601년 33세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빈상(賓相)이 된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공을 문장이 뛰어나다고 뽑아서 제술관(製述官)으로 삼으니 사람들이 백의종사(白衣從事)라 하였다.

선조 임금이 공의 시를 보고 포상(褒賞)하여 순릉참봉(順陵參奉)과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아지 않고 강화(江華)에서 우거(寓居) 하며 후학을 길렀다. 이때 부민(府民) 가운데 아비를 죽인 윤상(倫常)의 변(變)이 있자 상소하여 별 주도록 하고 현석촌으로 돌아왔다.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강계(江界)로 유배될 때 공이 나가서 전송하자 송강이 “내가 가는 길에 천상선(天上仙)을 만날 수 있었다” 하였다.

만년에 정주학(程朱學)에 뜻을 두고 송현(宋賢)의 사적을 엮어 <도학정맥(道學正脈)>이라 하였는데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발문(跋文)에

## 석주집(石洲集)

서 ‘대의(大義)에 깊이 이르렀다’고 했다.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 1576~1623)이 과거시 험의 책문(策文)에서 광해군의 잘못을 극언하여 과거급제가 취소되었는데 공이 시를 지어 풍자하자 이것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궁류시(宮柳詩)>였다.

승지 황혁(黃赫, 1551~1612)과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 1555~1612)이 함께 무고(誣告)된 사건에 광해군이 이 <궁류시>로 공을 친국(親鞠)하여 고문(拷問)을 가하자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 등이 힘써 구원하였다.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시키라는 명을 받고 겨우 동대문을 나가 촌사(村舍)에서 작고하니 향년 44세로 광해군 4년 1612년 4월 7일이었다.

배위는 흥주송씨(洪州宋氏)로 해광처사(海狂處士) 증자평(贈持平) 재민(濟民)의 딸이다.

공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城石洞) 감내의 선고 묘소 계하(階下)에 건좌(乾坐) 합罇이다. 묘 같은 송시열(宋時烈)이 찬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사헌부지평으로 추증되고 임금이 치제(致祭)하였으며 뒤에 증손자 권수(權)가 귀히 됨에 따라 사헌부집의로 가증(加贈)되었다.

강화(江華)의 향현사(鄉賢祠) · 장성(長城)의 운암사(雲巖洞祠) · 서천(舒川) 기산(麒麟山)의 화산사(華山祠)에 배향되었다.

<석주집> 본집은 1631년에 이식(李植, 1584~1647)이 편집했고, 이듬해 공의 문하생인 흥보(洪齋, 1585~1643)가 그 밖의 잡문을 모은 외집 1권과 함께 간행했다. 별집은 1674년 이동직(李東稷, 1611~1675)이 시 100여 수와 문 9편을 가려 뽑아 본집·외집과 함께 간행했다.

본집의 첫머리에는 이정구(李廷龜, 1564~1635) · 흥보(張維, 1587~1638)의 서문이 있으며, 별집 끝에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석주별집跋

(石州別集跋)>이 실려있다. 권1은 5언고시, 권2는 7언고시, 권3은 5언율시, 권4는 7언율시, 권5는 5언배율, 권6은 5언절구, 권7은 7언절구, 권8은 잡체시(雜體詩)를 실었으며, 외집에는 소(疏)·설(說)·기(記)·전(傳) 등 산문을 실었다. 별집의 권1에는 시를 각제별로 나누어 실었고, 권2에는 서(書)·제문·서(序)·기(記) 등 산문과 ‘사우록(師友錄)’ 등을 실었다. 원문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구두점이 붙은 원문 이미지와 국역문도 열람할 수 있다. 그 외 <석주집>의 간행 경위 등은 한국고전종합DB에 실려있는 고려대 심경호(沈慶昊) 교수가 쓴 <<석주집> 해제>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음은 <석주집> 권7에 실려있는 <문임무술사(閔任茂叔削科)·임무숙(任茂叔)·과거급제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말을 듣고>이다.

## 宮柳青青花亂飛(宮柳青青花亂飛)

궁궐 벼들 푸르고 꽃은 어지러이 나는데

## 滿城冠蓋媚春暉(滿城冠蓋媚春暉)

성안 가득한 벼슬아치 봄볕에 아양 떤다

## 朝家共賀昇平樂(朝家共賀昇平樂)

조정에서는 다 같이 태평성대 축하하는데

## 誰遣危言出布衣(誰遣危言出布衣)

누가 위태한 말 평민 입에서 나오게 했나

이 시는 <궁류시(宮柳詩)>라고도 하는데 광해군의 비(妃) 유씨(柳氏)의 아우 유희분(柳希奮) 등 외척의 방종을 비난한 것이라 한다. 시에서 말한 궁궐의 벼들은 유씨를 비유한 것이다.



## 기운생동하는 용트림, 흥법사지

권혁진 박사  
주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여당 태종의 글씨를 모아 모사하여 새겼노라고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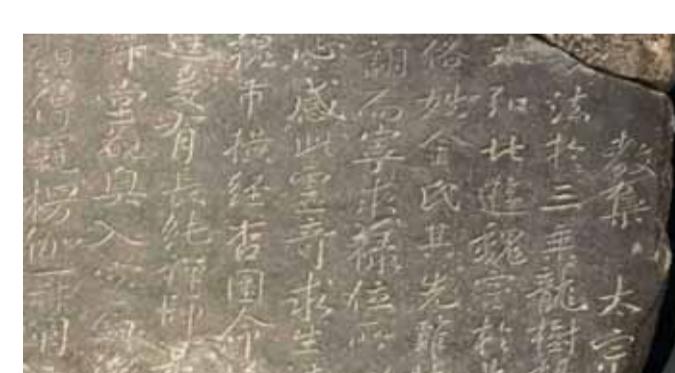
고려의 이제현은 “뜻이 웅장하고 깊으며 위대하고 곱다. 글씨는 큰 글자와 작은 글자, 해서와 행서가 서로 섞여 있어서 마치 난새와 봉황이 일렁이듯 기운이 우주를 삼켰다. 진실로 천하의 보물이다.”라고 찬탄하였다. 고려 태조가 글을 짓고 당 태종의 글씨를 모아서 새겼기 때문에 호사가들이 그토록 흥법사의 비석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후의 기록은 반복하여 칭찬하거나, 훼손된 것을 아쉬워하는 글이다. 기운생동한 반침돌과 머릿돌 때문이 아니었다.

흥법사가 폐찰이 되면서 비석은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성현(成僕, 1439~1504)이 원주에 감사로 부임하여 고을 안에 있는 관음사를 살펴보니 반 토막난 비석이 보였다. 부녀자들이 옷을 다듬질하고 소들이 뿔을 비벼서 글자가 많고 희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고려부터 조선 후기의 김정희의 글에 이르기까지 흥법사가 오르내렸다. 시에도 등장하고 지리서에도 언급되며 편지글에도 등장한다. 무엇 때문일까? ‘고려사절묘’는 충답(忠憲)이 죽자 흥법사에 탑을 세우고 왕이 친히 비문을 지었다고 적는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은 더 자세하다. 절에 비가 있는데 고려 태조가 친히 글을 짓고, 최광윤에게 명령하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보전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은 여러 조각으로 깨진 채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지만 타향에 서 떠도는 것은 진공대사탑비만이 아니다. 진공대사의 유골을 모신 승탑과 관련 유물을 담았던 석관도 같은 신세가 되었다.

1931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염거화상탑도 흥법사에 있었고 전해진다.

주변을 돌아보니 민가에 석축으로 쓰인 돌도 범상치 않다. 불당이 있던 자리인 듯 하다. 기와 파편은 흥법사지 구역뿐만 아니라 옆의 민가와 밭에서도 대량으로 출토

되었다. 흥법사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절터에 조선 중기의 문신인 허후(許厚)를 모신 도천서원(陶川書院)이 들어선 것은 1693년이었다. 서원이 있던 자리는 나무와 넝쿨로 덮혀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조그만 계곡에 우물이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자연 속으로 돌아갔다.